

오피니언

데스크시각

정기태



어릴 적 추억으로 남아 있는 것 중에 뽕튀기가 있다. 고살 고살을 돌려 옥수수며 쌀을 튀기는 큰 소리에 밖으로 뛰어나갔던 기억을, 누구나 갖고 있을 것이다.

작가 이영호가 쓴 '뽕튀기 할아버지'는 그 아스라한 풍경을 되살리는 창작동화다. 버거지 모자를 눌러쓴, 동화 속 할아버지는 곡식 낱알만 튀기는 것이 아니었다. 낡은 기계를 돌릴 때마다 '뽕튀기 된 쌀알 만큼이나 큰 쌀이 생산돼 아이들이 배를 굶주리지 않는 날이 오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허수로 얼룩진 지역 축제

작가는 이 동화를 통해 가난하고 먹을 게 없던 시절의 아픔을 들려준다. 그리고 뽕튀기가 필요없는 세상을 만들어 나가자고 역설한다. '뽕튀기 할아버지'는 안도현의 '언어'처럼, '어른들을 위한 동화'인 것이다. 그 뽕튀기가 유일한 간식거리였던 시절

은 지났다. 현대, 우리 사회에는 아직도 뽕튀기 소리가 요란하다. 쌀과 옥수수가 아니라, 돈과 사람 머릿수를 기계에 넣어 튀기고 있다. 하루가 멀다하고 도매기시장처럼 흥정대는 축제의 현장(現場)이 그렇다.

뽕튀기와 행정의 신뢰

지방자치단체는 축제 때 하루 10만~15만 명이 찾았다고 주장한다. 축제기간이 1주였다면, 일주 70여만 명이 넘는 방문객이 몰렸다는 계산이 나온다. 언론도 주최 측의 발표를 여과 없이 보도한다. 숫자만으로 보자면 '대성공(大成功)'이다. 과연 이 말을 어디까지 믿어야 할까?

호남대학교 '호남발전연구원'은 이런 산술(算術)이 한마디로 '터무니없다'고 일축한다. 면적이 3만7천 평인 광주 패밀러랜드의 경우, 입장객이 발디딜 틈 없이 밀집하더라도 하루 수용 가능한 인원이 8

만2천여 명에 불과하다는 점을 반박 근거로 삼는다. '전남지역 축제 평가 모형 및 경제효과 분석 방안'이라는 보고서가 그것이다.

지자체는 특별한 기준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방문객 숫자를 추정한다. 방문객이 많고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큰 축제에 정부의 예산 지원이 몰릴 가능성을 감안, 숫자놀음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고흥군은 '2006 고흥 우주항공축제'(7월28일~8월1일)에 64만여 명이 참여했으며, 65억원의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발

생했다고 홍보했다. 하지만 이 기간 동안 모니터링 요원을 고용해 조사해보니 주전시관 방문객이 4만여 명에 그쳤고, 매출도 1억4천만원에 불과했다는 주장이 언론회에서 제기됐다. 졸속 기획으로 인한 예산 배정의 부당성, 홍보 부재, 보고서 한 장 없는 사후관리가 도마 위에 올랐다.

'강진 청자문화제'에 대한 자기반성도 나왔다. 승용차 수에 5명을 곱해 입장객을 추산하던 방식을 버렸더니, 예전 통계에 거품이 들어있었다는 것이다. 지난해 140여만 명이었던 입장객 수는 올해 40만 명,

관매액은 4억2천여만원에서 1억7천만원으로 저평가됐다.

엄정한 평가 후 재정비해야

지난 1997년 400여 개였던 우리나라의 축제는 이제 1천여 개를 넘어섰다. 지자체마다 내세우는 파급효과라면, 축제는 더욱 많이, 더 절판되게 열어야 한다. 축제는 지역발전의 선행조건(先導者)이며, 왕도(王道)인 것처럼 보인다.

그런데 광주 북구청이 8년 동안 계속해 온 자미(紫微) 축제를 폐지하고, 고흥군이 내년부터 우주축제를 축소키로 한 것은 어떤 까닭인가?

다시 뽕튀기의 기본 원리로 돌아가 보자. 뽕튀기는 기계에 곡식을 넣고 밀폐시킨 후 가열시킨다. 폐쇄적인 공무원 조직은 밀폐된 용기와 같다. 열과 압력을 가하는 것은 준비를 채근하고 부추기는 과정이다.

단한 뚜껑을 열면 압력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큰 소리가 난다. 다공질(多孔質)로 변한 낱알은 푸석푸석하고 쉽게 부서진다. 열 배 스무 배로 부풀었지만, 먹고나면 급방 배가 고프다. 그제 축제 뒤끝의 허망함이다. 축제를 뽕튀기하면 행정 불신도 함께 뽕튀기 된다.

〈사회1부장〉meonsan@kwangju.co.kr

시설

충격적인 광주 신설학교 납품비리 백태

광주시의회가 지난 9월14일부터 보름 동안 조사한 광주 시내 신설학교 납품 비리행태를 공개했다. 이번에 드러난 납품비리를 보면 과연 우리 교육이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지 회의감이 들 정도로 참담하다.

광주시의회 조사결과에 따르면 학교 납품은 온갖 편법과 눈속임이 동원된 거의 북마전 수준이다. 일부 학교는 기자재 및 비품 시방서를 특정업체의 도움을 받아 작성한 뒤 그 업체와 계약을 하고 시방서 작성업체가 제시한 단가를 그대로 적용했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시방서에는 수입산이라고 명시하지도 않고 국내산보다 40%나 싼 중국산 기자재를 구입한 학교도 있었다. 심지어 10만원대의 기자재를 서류상으로는 32만원대에 구입한 것으로 기재한 학교가 있는가 하면 똑같은 제품을 구입하는데 학교에 따라 가격이 2배 이상 차이를 보이기도 했다. 신설학교의 경우 3~5년이 지나야 완

성확급이 되는데도 기자재와 비품을 일괄 구입해 상당수 기자재와 비품이 수년씩 사장되고 있다고 하니 학교 납품비리가 어느 정도인지 짐작이 가고도 남는다.

무엇보다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은 이 같은 문제점이 매년 반복되고 있는 데도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감독기관 교육청은 일선학교의 비리를 정말 몰랐는지, 아니면 알고도 모른 채했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학교 납품비리는 업계에서는 공공연한 비밀이 되다시피 마연해 있다. 신설 학교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일반학교에도 비밀비재 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이번에 드러난 비리에 대해 당국의 철저한 수사와 함께 관련자의 엄정한 처벌을 촉구한다. 학교비리를 방지하고자 아무리 좋은 정책이 나온들 교육이 바로 설 수 없기 때문이다. 백년지계(百年之計)인 교육이 이렇게 흔들리고 썩어서야 되겠는가.

외교안보라인 갈등 국론분열 부추긴다

'386 간첩단'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불거진 정부 외교안보 부처간 갈등이 심상치 않다. 김승규 국정원장의 교체 배경을 놓고 '외압설'이 나오는가 하면 북한 핵 사태 대처와 민주노동당 인사들의 방북에도 맞닥질이 부상한다. 부처간 갈등양상을 보면 정부가 과연 조정 및 통제력을 제대로 발휘하고 있는 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국정원장에 대한 '외압설'은 접입가 경이다. 야당 등은 정치권의 386 인사들이 간첩단 사건의 파장을 우려, 수사 중단의 압력을 넣었고 그 결과 국정원장의 교체로 이어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청와대 등은 '소설같은 이야기'라며 '외압설'을 일축하고 있다.

금강산관광 및 개성공단사업과 관련해서도 통일부는 남북교류와 경제협력 사업은 계속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국정원은 전면적 재검토를 주장했다는 것이다. 민주노동당 인사들의 방북에도 국정원과 법무부는 반대입장을 냈지만

통일부가 방북을 승인했다고 한다. 국가의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부처 간 이견이 없을 수는 없다. 서로 다른 의견을 내는 것은 너무 당연하다. 국무총리나 청와대 비서실 등은 부처의 의견을 조율하여 최종 정책을 결정하는 것이 기본임무라 할 수 있다.

이번처럼 정책결정 과정에서 부처간 갈등이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국익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 특히 외교안보팀은 한반도 안보와 직결된 부처들이다. 한반도의 장래와 관련된 민감한 사안들을 깨달리는 것은 무책임한 행위가 아닐 수 없다.

한반도는 최대의 위기에 처해 있다. 대북제재가 본격화되고 있고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와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 구상 참여 등 한반도에 대치하려면 모든 국민들이 힘을 합쳐도 힘든 상황이다. 외교안보 부처간 갈등은 국론분열을 부추기고 국력만 소모하는 자해행위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이름,주소,전화번호를 써주십시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전화 062-2200-634/팩스 062-222-4918/이메일 opinion@kwangju.co.kr

은펜칼럼

정범도



제 6회 광주비엔날레가 유료관객 50만명을 이미 넘어하면서 11일 막을 내린다. 전위예술행사에 유료관객이 50만명을 넘어섰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

하지만 그 내용을 살펴보면 많은 아쉬움이 남는다. 현대 세계미술의 새로운 흐름을 보여주는 전위예술행사에 아직도 동원관객이 주를 이룬다는 사실이 우리를 슬프게 한다.

광주를 예향이라고 한다. 더 나아가 문화수도도 조성한다고들 한다. 그렇다면 우리 광주시민들이 예향과 문화수도에 걸맞은 문화의식을 지니고 있는가에 대해 생각해 보니 고개가 가웃해진다. 유독 우리 광주가 문화예술인들이 많아

에게도 책임이 있다. 공짜그림과 공짜 공연을 좋아하는 풍토에서 어떻게 우리 호남출신 문화예술인들이 제대로 평가 받고 제대로 대접받겠는가. '전업작가'는 실업자'라는 인식이 어떻게 사라지겠는가.

노무현 대통령께서 통영의 뛰어난 향토화가 전혁필 선생의 서울 전시회를 친히 관람했다고 한다. 그리고 대작을 주문해 현재 청와대의 가장 좋은 자리에 걸어 놓았다고 한다. 이는 향토작가 전혁필 선생의 위상과 그림값을 올리는 효과를 가져 올 것임이 틀림없다.

그런데 우리 호남출신 중앙의 정·관계의 유명하신 분들은 어떤가. 지방에 있는 우리 지역유지나 정관계

기고

홍석태



최근 기상이변으로 인한 태풍과 집중 호우가 빈번하게 발생되면서 우리나라에도 매년 대형재해가 발생하고 있다. 올해 7월 집중호우로 강원도를 비롯한 중부지역에 2조 5천억원 규모의 피해가 발생했으며, 지난해 12월에는 예년에 없는 폭설로 전남도만 하더라도 2천502억원의 피해를 기록, 3천314억원의 막대한 복구재원이 투입된 바 있다.

올해 전남지역은 제3호 태풍 '예루니야'가 강한 폭풍우를 동반하고 진도 지역으로 상륙했는데 태풍 우측에 위치한 완도, 고흥, 여수, 광양, 순천 등 남해안을 중심으로 434억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올해 태풍 피해의 유형을 분석한 결과 그동안 정비가 지연되고 있는 소하

랑을 장대교로 시공한 결과 이번 태풍 피해를 줄이는 효과를 거두었다.

제3호 태풍 '예루니야'로 인한 복구예산 944건중 26건은 완료했고, 금년 말까지 복구공사를 완료할 것으로 전력을 다하고 있으며, 규모가 큰 시설은 공정상 불가피하게 내년 우수기 이전인 6월까지 마칠 계획이다. 우리 도에서는 천변 저류지를 확보, 생태공원을 조성하여 홍수 때는 저류지 역할을 하면서 평상시에는 주민 친수공간으로 활용 할 계획으로 추진 중이며, 우수소통에 지장을 주는 하천 내 퇴적토와 잡초제거를 위하여 군 부대와 협정을 체결해 정비 및 인력을 지원받아 재해예방 사업을 시행하면서 항상 물이 담겨있고 친근감 있는 하천으

예방복구가 최선이다

천, 어항, 소규모시설이 주로 피해가 많았으며, 사유시설은 집중호우로 인한 주택 및 농경지 침수와 수산물중·양식 시설피해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태풍이나 집중호우시 농촌의 노약자들이 농경지를 둘러보다 급류에 휩쓸린 경우와 행락객의 무리한 등산 및 야영으로 인명피해가 매년 반복되었으나 이번에는 인명피해가 없었고 앞으로도 부주의에서 비롯한 인명피해가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되겠다.

집중호우시 피해가 많은 하천시설은 상류지역에서 산사태로 인한 나무 등 잡목이 하천에 설치된 교량 교각 사이에 거치면서 급류가 넘쳐 피해가 많았으나, 우리 도에서는 2002년 태풍 '루사'와 2004년 태풍 '매미' 복구사업과 하천 개수사업 등을 통하여 하천내 교

로 가꾸어 갈 계획이다. 우리가 태풍이나 집중호우, 지진, 해일 등 자연재해를 피해갈 수는 없는 없다.

그러나 자연재해 피해가 대형화되는 데는 급격한 도시화·산업화 따른 개발사업이 재해대비에 소홀히 했던 데에 원인이 있다고 본다. 앞으로는 각종 개발사업에 재해영향성을 검토하여 개발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또 재해예방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경보시설 등 첨단시설물의 확충은 물론 재난상황에 대비, 국민을 대상으로 훈련과 지속적인 홍보를 통하여 경각심을 갖고 주민 스스로도 내 재산 내가 지킨다는 자율적 방재의식을 갖는다면 자연재해를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이다. <전라남도 복구지원과장>

동성심 이용한 인터넷 '애견 아르바이트' 씩씩

초등학교 다니는 자녀가 애완동물을 사달라고 졸라 애견 사이트 몇 군대를 접속했다가 "학생이라 돈이 없지만 강아지를 분양해 준다면 정말 사랑하며 키우겠다"는 내용의 글을 봤다. 돈이 없는 청소년들이 얼마나 개를 키우고 싶어서 그럴까. 기왕 사는 김에 1~2마리 더 구입해 학생들에게 나눠주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을 했다.

그런데 이들 상당수가 청소년 사이에 유행하는 '애견 아르바이트'라는 것을 알게 됐다. 애완동물 주인들의 동성심을 이끌어 내 강아지를 공짜로 얻어 비싸게 되판다는 것. 그러나 분양 받는 애견이 비싸게 팔리지 않는다면 어린 새끼 강아지를 서슴없이 버린다고 한다. 청소년들이 사기성 아르바이트에 가담하게 됐는지 모르겠다. <▲정점순·목포시 대양동>

◇ 채택된 원고는 고료 드립니다.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만평도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는 고료도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공짜없는 문화를 위하여

서 그런지 몰라도 예술작품을 공짜로 얻으려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수준 높은 클래식 공연이든 국악가수 조영필 콘서트든 공짜표 요구가 너무 많아 기획사들이 광주공연을 꺼린다.

일요일 오전 11시 KBS '진품명품'을 보면 울화통이 터진다. 동국진체(東國眞體)를 완성시킨 원고 이광사 선생의 작품도 마찬가지다. 우리 광주가 자랑하는 의재 허백련 선생도 동시대의 이상범이나 변관식 노수현에 비해 형편없는 평가를 받고 있다. 광주에서 활동하고 있는 현대화가들도 마찬가지다.

이러한 문제들은 문·사·철을 아우르는 호남학이 정립되지 않아서이기도 하지만 이는 학계의 몫이고 우리 시민들

인사들이 지역의 문화예술인들로부터 공출 받아서 선불하는 풍토에 길들여져 있다. 또한 중앙에서 광주로 오고 가는 고위인사들의 이·취임시에도 이러한 행태들이 되풀이되고 있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우리 호남지역 문화예술인들이 제대로 대접받겠는가. 어떻게 작품 값이 올라가겠는가. 전업작가들이 진정으로 작품 활동만으로 생활을 유지할 수 있겠는가.

이제 우리 호남출신 중앙의 고위인사들이 우리 호남지역 문화예술인들의 작품을 비싸게 구입하는 운동을 펼치자. 중앙에서 광주로 부임하는 고위인사들이 광주의 지역 문화예술인들을 제대로 평가하게 하고 제대로 작품을 구입하게 하는 운동을 펼치자.

문화수도는 광주시민의 의식의 선진화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명심하자. <광주시 환경 시설공단 상임이사 2006년 7월 수성자>

은펜칼럼은 매월 광주일보 '오피니언'면 기고자중 최우수작에 수여하는 '은펜상' 수상자들의 모임인 '은펜클럽' 회원들의 기고를 실는 코너입니다.

달아나는 외국인 신부... 이주 여성 대책 세워달라

무안에서 한우를 키우는 사촌 형님과 결혼한 외국인 신부가 얼마 뒤 집을 나갔다고 한다.

돈을 벌기 위해 한국에 들어오는 수단으로 위장 결혼을 한 뒤 집을 나간 것이다.

특히 결혼을 앞둔 정보화사측이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데 '나 몰라라 하는 식'으로 무관심해 농민들만 속을 태운다고 한다.

회사측은 알선료 명목으로 많은 돈을 챙기고 사후 관리에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는 것이다.

농촌 총각들이 국제 결혼을 하는 것도 힘들게 결정할 일인데 위장 결혼을 통해 또 다시 상처를 입게 해서는 안된다.

정부와 자치단체, 경찰은 이들 농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대책을 세워야 한다. <▲이기철·광주시 서구 농성동>

無等鼓

최근 우리나라 자본의 해외유출 경향이 두드러져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다. 내외국인 가릴 것 없이 돈을 싸들고 밖으로 나간다는 것이다. 한국은행 통계는 이같은 행태를 잘 보여준다. 올해 9월까지 외국인의 국내 직접투자는 7억9천만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34억2천만 달러에 비해 4분의 1에도 못 미쳤다. 반면 내국인의 해외 직접 투자는 전년 동기 대비 33억2천만 달러에서 49억7천만 달러로 대폭 늘어났다. 외국인의 국내 투자액에서 내국인의 해외 투자액을 뺀 직접 투자 수치는 9개월 동안 41억8천만 달러 적자에 이른다. 직접 투자는 국내외에 공장은

을 기록했고 특히 주식시장에서는 72억 4천만 달러나 빠져나갔다. 외국인 증권 투자는 2003년 215억 달러가 순유입된 후 2004년 160억 달러, 2005년 87억 달러 등으로 유입 규모가 줄더니 올해는 순유출로 돌아설 판이다.

이와는 반대로 내국인의 해외 증권 투자는 올 1~9월 중 171억8천만 달러로 작년 동기의 34억5천만 달러에 비해 5배나 되었다. 이외에 도민이나 재외동포의 재산 반출, 유학 등에 의한 자본 유출도 해마다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나라 경제가 걱정스럽다.

자본 해외유출



이들 막으려면 어찌 해야 할까? 해답은 대항상의가 최근 전국 3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서 뚜렷히 찾아진다. 응답자의 52%가 해외대체투자 경험을 한 적이 있으며, 그 원인으로 노사여건, 정책 일관성 결여 등을 꼽았다.

노사관계의 개선과 정부 경제정책의 신뢰 회복은 문제 해결의 열쇠 중 열쇠임이 분명하다. <김우성 경제부장 wskim@kwangju.co.kr>

Table with publication information for Kwangju Ilbo, including contact details, subscription rates, and address.